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namnaum

## 법공양 페이지

# 찰나찰나 나투어 변하니 집착 말아야

**우리** 가 오늘(4월5일) 이렇게 또 한자리를 하게 됐군요. 본래 한자리를 하고 있지만 비가 와서 들어설 자리도 변변치 않고 해서 마음이 참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부처님께서 너무 밑에서도 설법을 하셨다니...

살다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물만생 중에 하(下)의 생명들은 육을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산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들거들 죽으면서 거들거들 살

고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인 없이 사는 집과 주인이 있는 집은 어떻게 다를까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심각하고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인이 없는 집은 어디 한쪽이 기울어지면 폐가가 되는 자기가 자기 집을 고칠 수가 없고 잘 다들어 놓을 수도 없고 잘 이끌어 갈 수도 없죠. 또 오고가는 사람들이 다 들고 빈 집이니까 그저 누구 누가 다 자고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주인이 있는 집은 그렇지 않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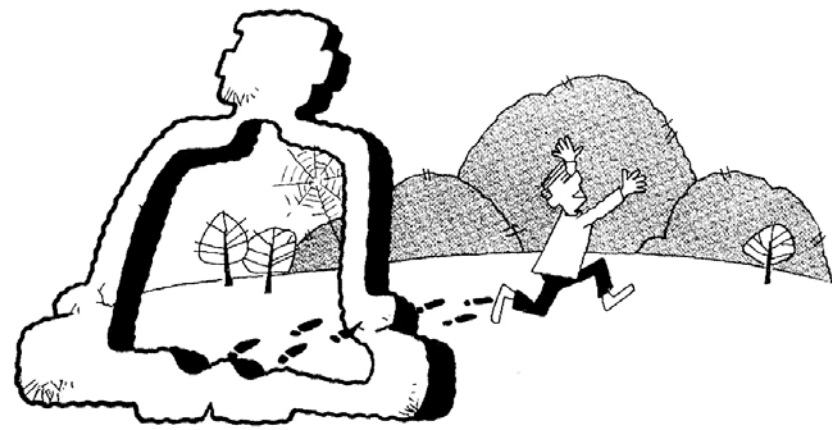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하나의 보살들로 이름을 다 지어 놓으셨습니다. 부처님이 저렇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움죽거리리는 몸뚱이로 저 부처님은 움죽거리지 않는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움죽거리지 않는 부처님 몸은 우리 눈에는 작아 보이지만 '부처님이다' 한다면 너무나 커서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크다고 합니다. 너무나 커서 이 우주를 두루 하고 계시죠.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모두를 말입니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를 두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한 발로 한 군데를 뛰어든다고 하니까 적다 많다, 길다 짧다 하는 게 없이 한 걸음에 뛰시니까 말입니다.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부처님과 같이 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서 소식이 왔다 할 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작아 없이, 묻지 말고, 이유 없이 무조건 '알았어'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벌써 여기서 한 찰나에 한 걸음을 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한걸음이라고 합니다. 대문 바깥도 한걸음이고 우주를 벗어나도 한 걸음입니다. 미국을 뛰어든 한걸음이고 이 문 밖을 뛰어든 한걸음이니 모두가 한발로 한걸음을 뛰는 도리입니다.

## "내 심봉잡고 몸을 흐르는 물같이 보세요" "마음에 욕심 넘치면 무서운 장마 만나요"

### 자기안에 안보이는 자기가 있어 엎어져도 쫓고 일어날 수 있는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 또 거들거들 먹고 먹으며 삽니다. 사 랫 역시 한철 사는 동안에 태어났다 하면 모두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그 사는 동안에도 어떻게나 허덕거리면서 사는 지 늙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그동안 뭘하고 살았던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 싶습니다. 회향을 할 때가 되니까 살아온 세월이 너무도 허망하고 섭섭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다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빈 집이라면, 주장자가 없는 빈 집이라면, 거미줄도 생기고 온갖 무리들이 다 와서 그 집이 헐어나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주인을 발견해서 세워라 이런 뜻이죠. 살다보면 가끔 이런 경우를 봅니다. 주인 없는 집에 잡 생명들이 들어와 사는 사람들 보면 모두 여여하지 못해요. 하지만 집에 주인이 있는 사람은 고생을 하든 안하든 마음은 첫째 편안하고 종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늙어서 회향을 할 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무거운 마음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 무거운 마음으로 회향을 한다면, 그 무거운 마음을 짊어지고 이 한 세상을 또 살아야 하니까 사립은 상세계와 하세계를 잇는 교차로와 같이 때문에 하세계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말을 해드리는데 이걸 그저 말로만 들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욕체가 바로 돌아가는 바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심봉이 꽃혀 있지 않으면 잘 돌아갈 수가 없죠? 심봉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심봉이라는 것은 자발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본래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살아서 움죽거리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바퀴가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야 하고 여길 가면 저길 가야 하고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야 하는 등 대중의 살림살이라는 것이 모두가 그러합니다. 한발짝 떼어놓으면 한발짝 없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먹고 지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먹는다 하더라도 먹으면 벌써 그건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아침죽 먹었느냐?" 하면 "식기 닦았습니까." 하는 것이 말이 되죠. 먹은 것은 이미 과거로 돌아갔는데 "밥 먹었습니까." 하면 되풀이 하는 얘기가 되니까요.

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즐겁게 살려고 해도 태산 같은 짐을 짊어졌으니 어찌 편안하게 살 수 있겠느냐. 그 짐을 내려놔라, 내려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짐을 내려놓을 것이나. 항상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찰나찰나 변하고 나투어서 이미 과거로 돌아간 이 집착이 집착하지 마시라구요.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 꿈을 꾸고, 또 형제간이나 친척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도 항상 집착을 하게 되죠. '잘 살아야 할 텐데...' 하고 관해주게 되는데 그것도 집착입니다. 식구들한테 집착을 하면 오히려 정말 받아먹을 것을 제대로 받아 먹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보이는 자기 안에 보이지 않는 자기가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기가 보이는 자기를 형성시켜서 이끌어 가는 것이니까요. '불성' 이다 '주인공' 이다 하면 못알아 듣는 이치가 있을까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이는 자기 속에 보이지 않는 자기가 있어, 보이지 않는 자기는 보이는 자기가 엎어져도 쫓고 일어날 수 있는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지팡이는 요술 지팡이와 같습니다. 찰나찰나 함이 없고 함이 없으면서도 현실에 넉넉하게 살아 나갈 수 있는 광대함, 그리고 묘한 마음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살아나가는 중에 여러분은 즐거운 게 몇 일경이나 되겠습니까? 즐거운 일은 뉘를 만하고 괴로운 것은 태산 같으니 이게 될 그렇게 즐겁게 산다고 하겠습니까?

그 연결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요소요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마음을 바로 하

법공양페이지는 동함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풀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8면으로 계속

### 생활속의 불교 166

## 약도라도 있어야 내 집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생활의 모든 것을 자기 뿌리에다 일임하라. 놓아라. 먹는 것 굶는 것, 잘자는 것 못사는 것, 되는 것 안되는 것,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등 그 모두는 뿌리가 하는 것이니 뿌리에 다 맡겨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짐재해 있는 내 실상 본래면목을 믿지 못하는 것이니 믿지 못하면 도와는 거리가 멀다."

**딱** 부러지는 방법, 보다 실제적인 방법이라면 분명 따라하기가 쉬운 것이 다. 가령 염불이라면 하루에 몇번을 했다, 또는 얼마동안 계속했다 말할 수 있 으니 실제적이다. 절을 한다면 백팔배, 삼천배 하며 셀 수 있으니 확실하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본래 면목을 참 구하는 수행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번 뇌 망상을 잠재우고 하심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어도 나의 근본실상을 밝히는 수행이 되지는 못한다. 거기엔 원가를 한다는 형(形)과 상(相)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놓**으라, 맡기라고 하니 사람이 따라서는 너무 막연해서 어렵다고 한다. 원가 딱 부러지는 방법이 없느냐고 한다. 놓아라! 방학작! 많이 듣고 많이 보았지만 겨우절미한 채 놓으라고만 하니 뭘 어떻게 놓는 것이냐고 묻는다. 세월처럼 하라 하지 말라가 분명한 것도 아니고 염불·기도·사경·정공처럼 실제적인 것도 아니니 어떻게 수련하고 닦아야 하는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고 한다.

**놓**는다 맡긴다 관한다면 원가 '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비록 놓았다고는 하나 진행, 진도가 보이질 않는다. 소극적인 것 같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생소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놓고 맡기고 관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다만 자신을 되돌아 보는데 익숙치 않은 탓이다. 우리는 늘상 외부세계의 형상에 얽매어 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게 몽땅 바깥 세계의 그 무엇을 상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 수행의 과정도 대상



화하고 싶어지고 그래야 하는 맛 닭는 맛이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놓고** 맡기고 관하라 하는 것은 '나'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놓고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참구해보라는 것이다.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의 근원을 캐어보면 거기엔 으레 '나다, 내가 한다, 내 것이다.' 하는 아상(我相)이 자리잡고 있다. 신·구·의로 짓는 일체의 행업(行業)은 바로 이 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는 자리인 것이다. 그 구멍은 한 구멍이다. 그러기에 그 구멍에 다시 놓고 그 구멍에 맡기고 그 구멍을 관하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것 나가 그 구멍으로 들어가고 참나가 그 구멍에서 나온다. 나의 내면의 일이니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나와 친숙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다만 안해보았기에 익숙치 않을 뿐이지 어렵지도 막연하지도 않다. 눈을 안으로 돌리거든 하면 그것으로 죽한데 무엇이 어렵겠는가.

**놓고** 맡기고 관하라 함은 내면으로의 여행을 이룸이다. 나에서 출발하여 나에 도달하는 것이다. 내가 출발하지도 도착하지도.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서 출발해서 나에게로 가는 것이다. 내가 나인 줄 알고 있는 거것 나(아상)와 참 나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자리이니 출발지와 도착지가 그 자리요, 나온 자리가 들어

**제** 집에 들어앉아서 제 집 찾는 방법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누구라도 '여기가 내 집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제 집 찾는 데는 따로 약도가 필요없다. 그러나 제 뿌리를 믿고 제 뿌리에 놓고 맡기고 제 뿌리를 관하라 하는데 달리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여기가 내 집이요 내 집 찾는 방법을 내가 아는 데 말이다. 다만 문 밖을 기웃거리지 말고 '나'를 화두삼아 눈을 안으로 돌려 그 자리 그 구멍을 관하면 그것이 도의 길이 된다.

협찬: 고재필·오선아